

## 이의제기서

### □ 이의제기 요청자 및 대상자

|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요청자 | 분 과   | 사회              | 동아리명 | 고은대 |
|     | 직 책   | 회장              | 이 름  | 박준영 |
|     | 징계 사유 | 재등록 서류 기간 내 미제출 |      |     |

### □ 근거 및 내용

|     |  |
|-----|--|
| 근 거 | <p>1. 회칙 11장 3절 106조 1항의 '학기 내 재등록서류 미제출시 등록 취소한다' 에서는 미제출로만 명시되어있는데, 지각제출도 이에 포함되는지가 모호합니다.</p> <p>2. 회칙 11장 3절 106조와 관련된 자동등록취소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받은 바 없습니다.</p> <p>3. 고은대는 단순한 경희대학교 중앙동아리가 아니라, 용인시 소재 보육원 '선한사마리아원'과 결연을 맺은, 1984년부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동아리입니다. 고은대의 중앙동아리 해체는 고은대의 도움을 기다리는 선한사마리아원의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집니다.</p>  |
| 내 용 | <p>운영위의 의결만으로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칙 11장 3절 106조에는 재등록서류 지각제출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는 단순 미제출의 경우만 언급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지각제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거쳐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</p> <p>물론 지각제출도 '기한 내' 미제출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중앙동아리연합회로부터 회칙 106조 1항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받지 못하였습니다. 사전에 공지받지 못한 상태로 내려지는 징계로서 동아리 등록취소는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.</p> <p>고은대는 1984년부터 보육원인 선한사마리아원에서 봉사를 해왔으며 1986년부터 경희대학교 중앙동아리 소속이었고, 현재도 74명의 부원들이 이같은 좋은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선한사마리아원의 아이들 또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달 1~2회 고은대 부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방문 뿐만 아니라 선한사마리아원 방학 캠프, 교육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고은대는 경희대학교 중앙동아리로서 받는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.</p> <p>물론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은 고은대 회장인 제 불찰입니다. 저는 좋은 뜻으로 모인 부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챙기고자 3월 15일에 부원 등록 이외 모든 서류 작성을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원 등록을 기다리고자 하였고, 결국엔 45명의 부원 등록밖에 받지 못하고 지각제출하였습니다. 비록 제 불찰이지만, 이외 73명의 고은대 부원과 선한사마리아원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은대의 중앙동아리 등록 취소 재결정에 관해 논의되는 자리가 열리길 희망합니다.</p> |

2023년 04월 04일

경희대학교 동아리연합회